

불교미술 한류 바람 파리로 향해

스페이스선 '연꽃과 붓다 Lotus et BOUDDHA'

한류 열풍을 타고 불교 미술도 파리로 향했다. 봉축을 맞아 스페이스선+가 주최하는 '연꽃과 붓다 Lotus et BOUDDHA'전이 6월 9일까지 프랑스 파리 갤러리89에서 열린다. '한국 불교 미술 작가 6인전'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번 전시는 동국대 미대 출신 작가 6인이 참여해 3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스페이스선+는 "프랑스 갤러리89와 공동기획한 전시다. 자연 생명 환경 등 공생적 가치를 담은 작품들을 통해 불교적 가치를 대중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자 기획했다. 개성 있는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파리 현지인들에게 불교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동국대 미대를 졸업한 6인의 불교미술 작가들의 작품이 선보인다. >김수정 '연화무늬'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박경귀 '소원을 말해봐' >이상기 '십이각 소반' >이승주 '가족' '이루 어지기' >이해기 '탄생' '적멸' >조수연 '연1(蓮)' '춘연(春蓮)' 등이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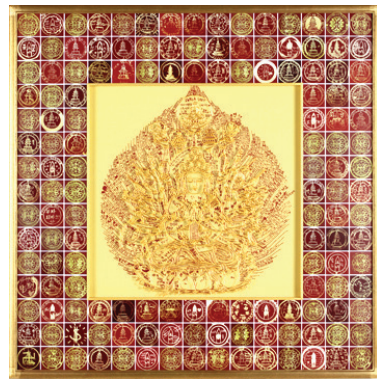
스페이스선은 "참여 작가 모두 불교를 소재로 꾸준히 작업을 해온 작가들이다. 한국 불교미술 역사의 맥락을 잇는 것은 물론 각자 특색 있는 다양한 작업을 꾸준

히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프랑스 현지에서 한국 포스트 불교미술의 전개와 방향 그리고 미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 불교미술의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 한국 작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동국대 졸업 불화 작가 6인 모여 프랑스 파리 갤러리 89에서 전시 자연 생명 환경 등 공생 가치 전달 불교미술 방향과 미래 제시

특히 부처님의 탄생과 열반을 다룬 이해기 작가의 작품은 주목할 만하다. 먹색과 금색 등으로 표현된 부처님의 모습은 중생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의 모습과 열반에 든 모습을 표현해 붓다의 자취를 그려낸다. 또한 박경귀 작가(스페이스선+원장)는 연속 무늬속 관세음보살과 연꽃을 표현 불성으로의 귀의를 작품으로 승화해 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스페이스선+는 6월 9일까지 프랑스 파리 갤러리89에서 동국대 미대 출신 6명의 작품을 전시한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박경귀 '소원을 말해봐' >김수정 '연화무늬' >이상기 '십이각 소반' >이해기 '탄생'

소설과 드라마 작가 등 불교문학인 양성에 '최선'

불교문학창작교육원 6월 5일 개강

영상과 활자 매체를 아우르는 불교문학 창작교육원(대표 남지심·사진)이 문을 연다. 6월 5일부터 텔레비전정보방송 3층 문수실에서 진행되는 강의에는 소설가 남지심, 장기오 前KBS PD, 소설가 정찬주 씨 등이 강사로 참여해 소설·동화·시·방송·드라마 등을 강의한다.

불교문학창작교육원은 불교와 문학을 아우르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대표 남지심(소설가) 씨는 "지난 해 불교신문 신춘문예 공모 심사위원을 보면서 글을 잘 쓰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불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글을 쓰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불교를 문학에 아우를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번 강좌를 개설하게 되었다"며 개원 취지를 설명했다.

이러한 대표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는 문화다. 그 중에서도 활자매체와 영상매체를 아우르는 문학은 그 어떤 장르보다 경쟁력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훌륭한 불교문학

불교 인재 양성 필요성 느껴 드라마·소설·시 등의 장르 접목한 창작교육 제공 부처님사상 대중에게 전하고자

작가가 펼치는 영향력은 무엇으로도 비교될 수 없을 것"이라며 불교문학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따라서 이번 강좌 개설로 문학은 불교사상을 받아들여 깊이와 넓이를 더하고 불교는 문학과 손 잡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

■ 불교문학 창작교육원 강의내용

강사	과목	경력
김재영 (동방대학교)	부처님 생애 강의	(롬비니에서 구시나이라까지)등 불교저서 다수
남지심 (소설가)	소설 동화 반 강의	우당바라 등 소설 수필 일대기 저서 다수
장기오 (전 KBS 대 PD)	방송드라마, 방송 구성작가 반 강의	KBS드라마 제작주관, 제작국장 역임, 한국방송사상 최초로 대 PD호칭 받음, 대하드라마 등 총 47편 연출, 드라마 바로보기, 바로 쓰기 등 저서 다수
정찬주 (소설가)	소설 강독, 작품 분석 강의	문학평론집 등 저서 다수
정찬주 (소설가)	소설 동화 반 강의	산은 산 물은 물, 암자로 가는 길 등 소설 수필집 등 저서 다수
천양희 (시인)	시 수필 강의	마음의 수수밭, 나는 가끔 우두커니가 된다 등 시 수필집 저서 다수. 소설시문학상, 현대문학상, 박두진문학상, 공초문학상, 만해 문학상, 대한민국예술상 문학부문 수상

상에 폭넓게 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 대표는 "문학을 통해 불교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원을 세운 저희 강사진들은 후배 불교문학 작가들을 양성하고자 다시 한번 원을 세우게 되었다"며 "이 일을 부

처님께 올리는 마지막 공양 중 하나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강의는 6월 5일 개강하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두 시간 동안 6주 동안 진행된다. (010)280-8628 jisimnam@hanmail.net 정혜숙 기자

"불교음악 경쟁력 강화 하겠다"

음악인 한자리 모여...한국불교작곡가협회 창립

작품 관리 및 후배양성 도모

불교 음악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불교 작곡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사)불교음악협회의 한국불교작곡가협회(회장 최영철, 이하 한국불교작곡가협회)는 6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창립식을 갖고 창립총회 및 임원 취임회를 진행한다.

이날 창립식에서는 회장에 최영철 씨가 취임하며 수석부회장에 정부기 씨, 부회장에 이찬우 조영근 김동환 박범훈 씨 등이 임명된다. 한국불교작곡가협회는 > 불교음악의 다양한 발전 >경쟁력 강화 >자생력 확보 등을 비전으로 내세운다. 주요사업으로는 >불교음악인들의 친목 및 소통 기능 >창작활동 >전문 작곡가 양성 및 교육 >불교음악의 조사 및 평가 >전문지식(음악지도) 기부(보시) 사업 >작품관리 및 저작권 옹호 등을 내세운다.

황학현 사무총장은 "그동안 불교음악

인들이 단체 결성을 위한 시도를 여러번 해왔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작곡가들이 중심으로 각자 흩어졌던 음악인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다. 이를 통해 불교 음악의 발전을 도모하고 후배를 이끌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취지를 전했다.

한국불교작곡가협회는 앞으로 >후배 양성 >불교음악 정체성 확보 및 위상 제고 >찬불가의 분류와 선별 및 수정 >신작 찬불가 제작 독려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찬불가 창작 보급 >불교음악인의 저작권 보호와 지위향상 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황학현 사무총장은 "전국의 불교작곡가와 음악인, 그리고 그동안 불교음악에 관심을 보였던 모든 사부대중의 힘을 하나로 결집해 우리의 목표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님께 발원하며 불보전의 정신을 거둬갈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정혜숙 기자

'아름다운 茶展'

담원 김창배 화백 초대전

'담원 김창배 화백 초대전'이 6월 4일까지 인사동 윤갤러리에서 열린다. '석가탄신일 기념 특별 기획전'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담원 화백의 '한국 선묵화, 아름다운 차(茶)展'이라는 주제로 관객들을 찾아간다.

이번 초대전에서는 '동심' '다인' '다일 생애' '차음' '선정' '수심' '월정상하' 등 30여 작품이 전시된다. '월정상하'는 달빛 아래서 스님들이 연꽃을 감상하며 차를 마시는 장면을 수묵으로 표현해 관객들의 눈길을 끈다.

차 그림 전문 연구가로 알려진 김 화백은 차와 그림의 접목을 시도한 서적 7권을 펴낸 바 있다.

또한 그림과 불교의 만남을 통한 선화를 연구하는 작가로 선묵화에 대한 8권의 화첩과 책을 엮어 냈다. 정혜숙 기자



김창배 화가의 '월정상하'

유화로 펼친 '만다라'

비공 추상화전 6월 5일까지

비공스님의 '비공추상화전'이 6월 5일까지 물과스페이스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스님은 만다라를 주제로 작품 31점을 유화의 질감으로 표현했다.

스님 작품의 추상적인 선들은 세상의 온갖 물질 그 가운데서도 살아 있는 상징한다.

미술평론가 신항섭 씨는 "비공스님의 작업은 오로지 순수한 예술가적인 혼을 깎아내리는 데 모인다. 순도 높은 의식은 다양한 이미지의 선으로 표현된다. 그 선들이 의미하는 것은 일종의 만다라일 수도 있다. 우주만상 또는 자연계의 실상 그 진수를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체계로 통합하는 만다라의 세계를 구현했다"고 평했다. 정혜숙 기자



비공스님 만다라화

'적하수오' 묘목 분양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묘목을 분양 합니다.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들에게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된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 (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적하수오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m(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문의: 010-8442-4444 (상담)

묘목 재배 농장: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인터넷 게임 중독, ADHD 학생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학교!

산골작은학교 수오학당

교육상담 (교무실) 054)751-3721 010-8678-3725

우리 학당은 경주에 있는 서당형 대안학교 입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보살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생활교육방식을 통해 배움을 몸으로 익히고 실천하는 공부를 합니다.

우리 학당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인성을 회복하고, 자신의 꿈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함께 나눌 학생들을 모집 합니다.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바른 진리 이야기

신간!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바른 진리 이야기

- *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갑니까?
- * 우리가 죽으면 살아있을 때의 모든 인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 풀기 어려운 인연은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 * 종교란 믿으면 천국이 겁니까?
- *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겠습니까?
- * 지구종말론은 사실입니까?
- * 이 험난한 시대를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가격 10,000원 031-534-3373